

‘日 백색국가 제외’ 무방비... 中企 절반 “대책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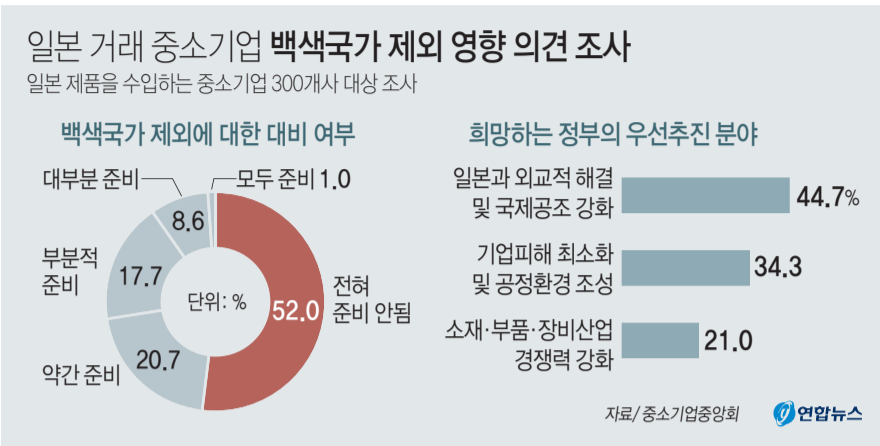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日수입 중소기업 설문
 그나마 대비책 “재고분 확보”
 57% “6개월 내 영향 올 듯”
 “정부, 일본과 외교적 해결을”

중소기업 절반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준비가 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를 충분하게 하고 있는 곳은 10곳 중 고작 1곳 정도에 불과했다.

향후 대응책으로는 재고분 확보, 대체시장 발굴 등을 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일본 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실시해 13일 내놓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가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응해 별도의 대비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곳은 38.4%, ‘준비가 비교적 잘 돼 있다’는 곳은 9.6%였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영향없다’가 32.7%로 가장 많은 가운데 ‘1~3개월’이 24%, ‘4~6개월’이 20.7%였다. 6개월 이내에 영향을 받는

다는 답변이 57%에 달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포함해 한일 무역분쟁에 대한 부작용 완화를 위한 준비 방안으로는 비교적 소극적인 대책인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많은 가운데 ‘대일본 거래 축소·대체시장 발굴’이 31.3%, ‘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가 15.3% 등이었다.

한일 무역분쟁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 공조 강화’ 44.7%,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공정환경 조성’ 3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21% 순이었다.

또 25.7%가 최근 일본 정부의 움직임 때문에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3%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고, ‘아직 모르겠다’는 답변은 39%였다.

영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례로는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24.7%로 가장 많았다. ‘환율 영향’은 13%, ‘매출 감소’는 10.4%였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기업들의 지난해 수입액은 평균 88억 4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산의 비중은 ‘60~80% 미만’이 36.3%로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

사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중점 육성할길 원하는 100대 품목을 포함해 전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공동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발굴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관련 대기업과의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구매 조건부 기술개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건의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대기업이 구매를 하지 않아 많은 기술이 사장돼 왔다”면서 “앞으로 중기중앙회가 우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대기업에 매칭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분업 협력 생태계 조성’ 중기부, 대·중소 간담회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분업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아랫줄 가운데), 강봉용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양재훈 LG 디스플레이 부사장, 오종진 SK 하이닉스 부사장 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전동침대 특화 ‘티타늄 스프링 매트리스’

쉴리침대 ‘플렉스 시리즈’ 공개
 “우수한 통기성, 편안한 수면 제공”

쉴리침대가 창립 138주년을 맞아 세계 최초로 티타늄 스프링 매트리스를 장착한 전동침대를 선보였다.

쉴리침대는 13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신제품 전동침대 ‘플렉스(FLEX)시리즈’를 처음 공개했다. ‘플렉스 시리즈’는 최고급 소재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티타늄 스프링 매트리스다. ‘프리지던트 플렉스’, ‘플렉스 펌’, ‘시슬레 플렉스’ 3종이 있다.

윤종호 쉰리코리아 대표는 “전동침대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매트리스는 누구나 만들 수 없다. 침대의 핵심은 매트리스”라고 강조했다.

‘플렉스 시리즈’는 쉰리침대만의 특화된 옛 기술인 ‘플렉스케이스’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플렉스케이스’는 쉰리에서만 볼 수 있는 최첨단 기술로, 굽어지는 부분에서도 스프링 매트리스의 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편함 없이 전동침대로의 호환 가능하다. 스프링 매트리스 전동침대의 단점을 보완한 ‘플렉스 시리즈’ 출시로 이제 전동침대 이용자들은 견고하면서도 통기성이 뛰어난 스프링 매트리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플렉스 시리즈는 또 진보한 정형외과적 기술인 강력한 티타늄 ‘센스 앤 리스폰드(Sense&Respond)’ 스프링을 전동침대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쉰리침대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티타늄 스프링 매트리스 전동침대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쉰리침대

록 제작됐다. ‘센스 앤 리스폰드’는 쉰리침대의 138년 역사의 기술력과 정형외과적 설계로 신체 유형이나 수면 자세에 관계없이 사용자 몸에 딱 맞는 각도로 척추를 빠르게 지지해 최적의 수면 시스템을 제공한다.

쉰리침대 고유의 혁신 기술력이 녹아든 ‘플렉스 시리즈’는 탄탄한 지지력을 바탕으로 수면 공간 그 이상의 휴식을 선사해 다가올 전동침대 시대에 기준점을 제시하는 매트리스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플렉스 시리즈’는 쉰리침대 전국 주요 공식 판매처 및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윤종호 대표는 “플렉스 시리즈는 스프링 매트리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통기성 및 지지력이 뛰어난 편안한 수면을 제공할 뿐 아니라 침대 위에서 다양한 일상들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크게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유니크굿... 나우버스킹... 서스틴플로어

이름을 보면 스타트업이 보인다

기업 운영방식·정체성 담아
 영화 제목서 영감 얻기도

제2벤처붐을 타고 톡톡튀는 이름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뜻을 재치있게 담아낸 기업부터, 사명에 스타트업의 운영 방식을 표현한 기업까지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이름에 두루 담았다.

굿럭컴퍼니, 팜캣, 서틴스플로어 등은 회사명에 사업 내용을 녹였다.

13일 관련 회사들에 따르면 여행 짐 이동 서비스 ‘굿럭(GoodLugg)’은 좋은 짐을 뜻하는 영어 단어 ‘굿 러기지(Good Luggage)’의 줄임말이다. 굿럭컴퍼니는 회사 이름에 짐이 방해가 되지 않고 편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서비스 내용을 담았다. 행운을 빈다는 영어 ‘굿 럭(Good Luck)’과 발음이 유사해 당신의 여행에 좋은 짐 서비스로 행운이 깃들길 바란다는 뜻이 담겨있다.

팜캣은 동작 인식 기술로 다양한 IT 기기와 장치를 제어하는 웨어러블 3D 동작 인식 모듈을 만든다. 손 제스처로 동작을 입력하기 때문에 ‘손바닥(팜·Palm)’을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에 현재 가장 많이 쓰는 컨트롤러인 마우스(쥐·Mouse)를 따라잡는 ‘고양이(캣·Cat)’ 같은 컨트롤러를 만들자고 해서 회사 이름



을 손바닥 고양이인 ‘팜캣’으로 지었다.

VR 콘텐츠 서비스 기업인 ‘서틴스플로어’는 영화 ‘13층’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 영화 ‘13층은’ 가상현실 게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풀어내는 스릴러 영화다. 송영일 의장은 이 영화에서 영감을 얻어 VR 콘텐츠를 회사를 만들게 됐고, 회사 이름도 영화 이름 그대로 ‘서틴스플로어(The Thirteenth Floor)’가 됐다.

스타트업의 정체성을 표현한 이름도 있다.

나우버스킹은 지금을 뜻하는 영어단어 ‘나우(Now)’와 길거리 연주를 뜻하는 ‘버스킹(Busking)’을 합친 말이다. 나우버스킹의 창립멤버 중 한 명이 영국 템즈강에 놀러갔다가 여기서 버스킹을 하지 마시오(No Busking)라는 표지판을 보게 됐다. 그런데 한 연주자가 그 표지판에 W를 써 넣어 NO를 NOW로 만든 뒤 공연을 시작했다. 나우버스킹의 창립멤버들은 그 W같은, 생각을 뒤집는 놀라운(wow)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디서든 멋진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회사 이름을 정했다.

전상열 나우버스킹 대표는 “길거리 연주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악기를 다루면서 합해서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스타트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우버스킹은 임직원들은 버스킹을 하는 사람이란 뜻인 ‘버스커(Busker)’라 부른다. 아이디어 회의실도 여기서 기원해 ‘템즈’다.

이은영 유니크굿 대표는 “이름이 모든 것을 대변하기 때문에 회사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말처럼 특별하고(Unique) 좋은(Good) 아이디어는 유니크굿컴퍼니의 모든 것을 정하는 요소다. 경험산업으로 사회 문제를 푸는 유니크굿컴퍼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유니크한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 사회 문제를 푸는 솔루션이 유니크한지, 우리나라 유니크한 과정으로 일하고 있는지, 우리 멤버가 어떤 유니크한 사람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유니크굿’이라 지었다. 이은영 대표는 “스타트업의 의사결정은 이렇게 특이하고 좋은 것이어야만 살아남는다”고 덧붙였다. 최근 송인혁·이은영 두 대표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도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책 ‘유니크굿’을 출간하기도 했다. /배한미 기자 ericabae1683@

기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차 접수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의 성공에 힘입어 2차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청기업을 오는 9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비상장기업으로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이다. 코넥스 상장기업은 가능하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보증한도를 일반보증의 30억원 대비 최대 100억원까지 대폭 상향했으며, 고정보증료 1.0%에 협약은행 대출시에는 100% 전액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대상기업의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기자